

농촌진흥청,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현장 소통 강화'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20일 경남 합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현장 방문
- 가축분뇨 액비 활용, 국제 원자재 공급 불안 대응·비료 수급 안정성 높여
- '가축분뇨 활용 특별팀' 가동, 현장 의견 반영 유기적 경축순환 기반 마련

※2026. 7. 20.(월) 15:30~17:30, 경상남도 합천축협 및 초록자원화센터 방문 및 간담회

최근 국제 정세 불안정으로 화학비료 공급망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 액비를 농업자원으로 전환해 화학비료 의존도를 낮추고, 경축순환 농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7월 20일 경상남도 합천군에 있는 합천축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초록자원화센터)을 방문, 액비 생산·공급 체계를 살피고, 액비 활용 확대를 위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합천축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지역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고품질 액비를 생산·공급하는 우수 시설이다. 이를 통해 지역 축산환경 개선과 경종 농가의 토양 양분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청장은 시설 내 액비 생산 공정과 공급 체계를 차례로 둘러본 뒤, 액비 제조·운반·살포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무 차원의 어려움과 농촌진흥청 기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이어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자, 액비 활용 경종 농가를 비롯해 유관 기관 및 농촌진흥청 '가축분뇨 활용 특별팀(TF)'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갖고 액비

생산과 유통, 이용 확대를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승돈 청장은 “가축분뇨 액비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용한 농업자원”이라고 강조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농가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액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축분뇨의 자원 활용과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은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가축분뇨 활용 특별팀(TF)'을 통해 현장 맞춤형 기술 보급과 행정·제도적 지원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현장방문 일정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스마트축산환경과	책임자	과 장	장길원 (063-238-7400)
		담당자	연구사	김종곤 (063-238-7407)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 현장방문 개요

- 일 시 : 2026. 7. 20.(월) 15:30 ~ 17:30 * 출발 13:00
- 장 소 :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현장방문}, 합천축협 본점^{간담회}
- 참석자 : 농촌진흥청, 합천축협, 경종농가, 한돈협회 등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장, 축산생명환경부장, 식량산업기술팀장, 토양물환경과장, 스마트축산환경과장 등
 - (합천축협) 조합장, 상임이사, 자원화센터장 등
 - (경종농가) 수도작 1, 조사료 1
 - (한돈협회) 한돈협회장, 경남도협의회장, 합천지부장 등
- 내 용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액비화) 현장 방문 및 의견 청취

◆ 방문포인트

- ① (현장방문) 합천 축협 공동자원화시설 운영현황 점검
- ② (간담회) 가축분뇨 액비 생산·살포 애로사항, 활용 효과 등 의견 청취

□ 세부일정

시 간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5:30~16:00 <현장방문>	30'	◦ 합천축협 공동자원화시설 점검	* 현장안내 : 자원화센터장
16:00~16:30	30'	◦ 이동(합천축협 초록자원화 → 합천축협 본점) *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668-1	9.5km
16:30~17:30 <간담회>	60'	◦ 액비TF 추진현황 공유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 진행: 스마트 축산환경과장